

A Comparative Study of Vietnam's *The White Clothes of Saigon* and South Korea's *The Diary of a Young Man* - Difference and Repetition in Asian Student Movement Literature

베트남의 '사이공의 흰옷'과 한국의 '청년일기' 비교연구 - 아시아 학생운동 문학의 동일성과 차이

오창은 (Chang Eun Oh), 중앙대학교

1986년 한국에 응웬 반 봉의 <사이공의 흰옷>이 번역 소개되었다. 한국 청년들은 이 작품을 반미 항쟁의 교재처럼 읽었다. 한국정부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지만, 금서 지정으로 대학가에서 더 널리 읽혔다. 한국에 소개된 책은 일본어본을 다시 한국어로 옮긴 중역본이었다. 일본에서 간행된 책은 『白い服: サイゴンの女子学生の物語』(1980.2)였다. '사이공의 흰옷'은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널리 읽히다가 사라졌다. 2006년에 <하얀 아오자이>라는 작품으로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 직역된 작품이 간행되었다.

<사이공의 흰옷>은 베트남의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인 흥이 사이공의 대학으로 진학해, 학생운동가로 성장해 나가는 서사를 담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1954년 봄에서 1960년대까지의 시기로, 베트남 젊은이들이 미국의 반공 정책에 맞서 해방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여학생 흥의 서사를 통해, 베트남 청년의 정체성 변화를 세계의 변화와 연결하고 있다.

<사이공의 흰옷>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김남일의 <청년일기>가 1987년 풀빛에서 간행되었다. 이 소설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김태근, 노동운동가로 적극적 실천을 선택한 한동민,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는 이병호 등이 등장한다. 한국 대학생 청년들이 독재체제라는 억압적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 소설에 잘 그려져 있다. 또한 <사이공의 흰옷>과 <청년일기>는 연관성이 있다. '사이공의 흰옷'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청년일기'가 간행되었고, 한국 대학생들은 <사이공의 흰옷>을 통해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은 <사이공의 흰옷>이 <청년일기>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한다. 더

불어 냉전체제가 아시아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문학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려 한다. 베트남과 한국 학생운동의 '동일성과 차이'는 텍스트적 측면과 컨텍스트적 측면에서 함께 의미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아시아 사회현실과 학생운동의 관계를 문학을 통해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베트남 전쟁, 베트남 학생운동, 한국 학생운동, 학생운동 문학, 사이공의 흰옷, 하얀 아오자이, 사이공의 흰옷, 응웬 반 봉, 김남일, 반미, 반독재